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6

"감사함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마음열기

아주 가난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아이도 많고 또 가난에 쪼들려 부인이 늘 바가지를 긁어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이 왜 이리도 지옥 같으냐고 하면서 랍비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가난한데다가 아이도 많아 그 아이들이 좁은 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또 부인은 바가지를 긁어대니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랍비가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염소 있는가?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염소 없는 유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염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랍비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염소를 오늘부터 방에서 키우게. 그 사람은 랍비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이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떠드는 아이들, 바가지 긁는 여편네, 게다가 염소까지...저는 이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번에는 그에게 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닭이 10 마리 있다고 하니까 그 닭 10 마리도 방에서 키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랍비의 말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며칠을 지낸 이 사람이 다시 랍비를 찾아 왔습니다. 아이고 랍비여, 아이들은 아우성이고, 부인은 바가지를 긁어대고 거기에 염소와 닭이 날뛰니 저는 정말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염소와 닭은 내놓고 지내게 집에 돌아가 다시 한번 랍비의 말대로 한 이 사람은 다음날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여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염소와 닭을 내놓으니 이제 우리집은 천국과도 같습니다.

☞ **"천국과 지옥은 상황이 아니라 관점일 수 있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나요?**

☞ **요즘 내가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감사할 점이나 긍정적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눔

1. 아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서로 나누어 주세요.

☞ 요즘 나를 행복하게 만든 작은 일이나 물건은 무엇인가요?

☞ 최근에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낀 일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감사했나요?

☞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중 가장 감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평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서 감사한 것을 하나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싶나요?

2.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빌립보서 1:1-8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2.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3.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5.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6.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 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7.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8.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 **오늘 본문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을 달아 보세요. (1-3절)**

- 편지의 발신자 :

- 편지의 수진자 :

- 편지를 쓴 이유 :

📁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5,7절)**

📁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지은 적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한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내 삶의 신앙 여정에서 함께해 준 동역자가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나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8절)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적용과 결단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은 만난 첫날부터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 복음의 교제를 해 왔다고 이야기 한다. 그들은 예수를 믿은 그 날부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서로 간에 끈끈한 교제가 있었다. 비록 외적으로는 심각한 박해가 있었고, 교회 안에 다툼과 가난이 그들을 괴롭게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개의치 않고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바쳐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위해 물질을 모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 물품을 보내주었다. 심지어 바울이 옥중에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찾아와 주었고 함께 아픔을 나누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비록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자신을 위해 헌신해준 복음의 교제에 있고 함께 은혜에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감사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고 서로에게 복음의 동역자가 되며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복음의 교제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다.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따뜻한 사랑의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부터 낙심한자들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자들을 위해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바울이 말한 복음의 교제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 안에서 감사함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감사함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또한 우리에게 크나큰 행복을 준다. 우리 벤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한 사람 한사람 이름만 생각해도 기쁘고 빨리 만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함께 울고 싶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도